

KCCI 브리프_ESG_제44호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4. DEC

전문가 기고

ESG, 인권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ESG 주요 현안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ESG, 인권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유승권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장

“ESG 시대의 기업 경영이 ESG 이전 시대의 경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책임의 범위”가 우리 기업 내부에서 가치 사슬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ESG, 지속가능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前)UN인권특별대사이자 현재의 기업 인권경영의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제러드 러기(John Gerard Ruggie)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는 자신의 책 ‘기업과 인권 (원제 : Just Business)’에서 기업의 인권 경영 책임자는 다음의 두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 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2024년 발간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든 보고서에 인권 경영 파트가 있다. 그리고 인권경영 파트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권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체계가 형식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안에서 어떤 사람이 인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SG 평가나 인권경영 평가도 마찬가지다. 실존하고 있는 취약한 인권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인권경영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존 제러드 러기 교수가 UN인권특별대사로 재직할 당시 UN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현재 기업 인권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보면 기업이 인권경영을 해야 하는 목적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권경영체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자랑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권경영체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취약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에 있다. 2024년 5월에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EU CSDDD』 또한 인권 실사의 원칙과 방법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따를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예전의 인권경영과 ESG시대의 인권경영의 차이점

인권경영을 잘해야한다고 강조하면 국내 대기업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근무 환경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직원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남녀차별이 없고, 최저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주고 있으며, 아동 노동이나 노예 노동도 당연히 없고 인권과 관련된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자유보장과 정기적인 협상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소통 채널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어지간한 국내 대기업의 인권경영 상황은 (이사회 및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제외하면) 글로벌 대기업에 비추어 봐도 큰 문제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대기업 내부의 상황만 그렇다는 것이다. ESG, 지속가능경영 시대에는 우리 기업 내부의 상황만 살펴서는 안 된다. ESG 시대의 기업 경영이 ESG 이전 시대의 경



ESG, 인권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책임의 범위”가 우리 기업 내부에서 가치사슬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ESG, 지속가능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ESG 이전과 이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책임의 실행 방법이 예전에는 법적 책임이나 리스크 예방과 같은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제는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는 능동적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강조하는 지침의 지향점 또한 공급망 협력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협력사들에게 존재하는 인권과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에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2011년)』, 『UN SDGs(2015년)』, 『ISO26000(2010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1975년)』, 『OECD 실사 지침(2018)』 등 현재 ESG,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글로벌 지침들 또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는 이유

인권경영 책임의 범위를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하고 법적 문제를 넘어 해결까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면 국내 기업에서는 ‘기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실행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자원이 소모될 것이다’ 라고 하며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려고 한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문제 해결까지 해야 하는 원칙이 이상적이고 대의적인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실적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 애플, 나이키,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네슬레 등은 자체 법인의 인권 이슈가 아닌 협력사들의 인권 문제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른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인권단체의 항의 정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주요 언론사의 비판 보도, 정치권의 압력, 법적 제재, 손해 배상과 벌금 등으로 매출 감소, 임직원 이탈, 평판하락 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과 브랜드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개발도상국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UN과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제선진국이 되었으며,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다. 국격이 상승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책임도 늘어난다. 예전에는 그냥 봐주고 넘어갔던 문제가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인권경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우리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써왔다면 이제는 가치사슬 전체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망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과 브랜드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가치사슬전체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사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표이사 인사말에 거의 모든 기업이 쓰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ESG의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을 것이다.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 규칙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지 9년 만에 최종 합의하며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개요

전 세계 각국이 모여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 개최되었다.

이번 COP29에는 약 198개 당사국에서 80개국 정상급(대통령, 총리, 부통령 등) 인사, UN 사무총장, UNFCCC 사무총장, 정부 협상대표단, 기업 대표, 시민사회, 청년 등 약 5만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호식 대통령 특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교체 수석대표) 등과 관계부처(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였다.

올해 COP29에서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는데, 당사국들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기후 투자를 연간 1조 3천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당사국들은 협상이 개시된지 9년 만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 규칙에 최종 합의하였고,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를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COP29와 연계하여 개최하였고, 본 총회에서는 NCQG와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세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 프로그램*이 포함된 바쿠 기후 통합서약(Baku Climate Unity Pact)을 타결하였다.

* 2030년까지의 감축 의욕 강화 및 이행을 목적으로, 연 2회 전지구적 대화체 및 투자중심행사를 개최

2.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주요 의제 및 성과

COP29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신규기후재원목표 합의 (NCQ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기후재원목표합의(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를 설정 *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약 1,825조 원 이상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 * 1.3조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 과정에서 연간 3천억 달러를 선진국 공여 위주로 조성 *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통한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 장려와 다자 개발 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역할 확대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규칙 합의 (파리협정 제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제 6조 세부이행규칙 합의도출 * 제 6.2조: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탄소 감축 결과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제 6.4조: 중앙 감독 기구 관리 하에 각 국가가 탄소 크레딧을 거래 →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 거래가 가능해지는 기반 마련 성공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분야	주요 내용
전지구적 이행점검 (GST) 후속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COP28의 가장 큰 결과물이었던 GST(전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를 바탕으로 GST 절차의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절차적 사항 논의 1) UAE 대화체 설립: GST1 결과 이행을 위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 UAE 대화체가 모든 GST1결과 관련 논의의 장이라는 입장, 개도국 : UAE 대화체가 GST1 결과의 이행을 위한 자원 논의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 → UAE 대화체의 범위 관련 선·개도국간 이견차로 합의 실패, 다음 회기로 이관 2) GST 연례대화체 설립: 차기 NDC (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GST1 결과 반영을 위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T 연례대화체('24년 6월)의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 내용 포함 여부 및 대화체의 지속 여부 관련 이견차*로 다음 회기로 이관 * 개도국은 차기NDC 수립 관련 실질적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되는 것이 위임사항을 벗어나며, 1회로 끝나야 한다는 입장 고수
감축 (M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름 엘 셰이크 감축작업프로그램(MWP) 의제 협상 1) MWP 결정문에 올해 논의 주제(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 냉방, 기기 등에서 운영 배출 감소/공간 계획,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전기화/녹색 및 블루 인프라로의 전환 2) 당사국들이 제시한 작업프로그램의 절차적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결정문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는 절차/ 비대면 참여 기회 확대 등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과 이행 방식 논의 -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체(Baku high-level dialogue on adaptation)와 바쿠 적응 로드맵(Baku Adaptation Road Map) 수립 합의 - 최빈국에 대한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이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립 - 바쿠 작업 계획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교환 촉진, 참여 역량 강화, 다양한 지식 체계와 기후 전략의 통합을 목표로 함 * 지역과 분야 간의 협력을 강조 -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 플랫폼(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latform, LCIPP) 2025-27 작업 계획 승인

2-1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번 COP29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기후 문제 대응 자원 확충이었다. 기존 연간 1천억 달러 기후 자원 공약이 2025년에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자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수립했다.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논의 배경	주요 내용
COP15 (‘09, 덴마크 코펜하겐)	선진국은 개도국 기후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연 1천억 달러 동원을 약속
COP21 (‘15, 프랑스 파리)	위 목표를 ‘25까지 연장, ‘25년 이전까지 이후를 위한 신규 재원조성 목표 수립에 합의
COP26 (‘21, 영국 글라스고)	2024년에 NCQG 논의를 종결하기로 하고, 2022~2024년 3년간의 작업 계획 수립
COP29 (‘24, 아제르바이잔 바쿠)	NCQG 최종 합의

COP15에서 수립한 재원 목표 공약이 몇 차례 연장 이후 최종적으로 2025년에 종료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COP29에서 신규 재원 목표 수립 합의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COP29를 통해 국제사회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약 1,825조 원 이상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중 연간 3천억 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공여와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재원 목표 대비 선진국의 동원 금액이 3배가 증가한 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향후 재원 협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개발도상국은 3천억 달러에 MDB가 내는 기여금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공여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2 국제탄소시장(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세부이행규칙

파리협정 타결 이후 COP24 카토비체에서 나머지 파리 협정 조항의 이행지침은 타결되었으나,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가능하게 할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파리협정 6조에 대한 세부이행규칙은 COP24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COP29에서는 기존에 합의에 실패했던 파리 협정 6조에 대한 세부이행규칙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국제 탄소시장에서 감축 실적 판매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탄소배출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2항인 ‘협력적 접근법’과, 단일한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제4항 ‘제 6.4조 메커니즘’로 이뤄져 있다. COP29에서는 각국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어떻게 승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거래된 탄소의 양을 측정하고 추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파리 협정 제6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탄소배출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6.2조는 사업의 환경 건정성 및 투명성이 입증되고 이중계산 방지를 포함한 엄격한 산정규칙이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감축 결과물(MO, Migration Outcome)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된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MO를 파리기후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달성 등에 사용할 경우 특별히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이라 명명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ITMO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제 6.4조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하에 있었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후속체제로, 하나의 감축기구의 중앙집권적 운용 구조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량 거래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다. 6.4조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에서 정한 감축기구 하에서 운영 및 관리되고, 이곳에서 발급한 A6.4ER이라는 감축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여기서 생성된 A6.4ER은 MO와 동일하게 ITMO로 사용할 수 있다.

2-3. 감축(Mitigation)

COP29 감축 의제에서의 중요한 논의는 COP27 샤름 엘 셰이크에서 설립된 작업프로그램(MWP, Mitigation Work Program) 결정문 도출이었다. MWP는 긴급한 감축 의욕 강화와 이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작업 프로그램으로, 매년 당사국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2023년에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24년에는 '도시: 건물 및 도시시스템'을 주제로 총 2회의 글로벌 대화체(GD, global dialogue)와 투자중심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이번 MWP 의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은 감축 의욕 강화와 추가적인 목표 설정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기에 협상 유지에 난항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진전된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는데, 이번 결정문에는 올해의 논의 주제인 건물 및 도시시스템 관련 주요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참가국들은 감축 행동 강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에도 합의하였다.

감축 의제의 또 다른 큰 축은 작년 COP28의 가장 큰 성과인 GST1 결정문을 바탕으로 그 결과 내 감축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은 2023년부터 5년마다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COP28에서 처음 실시되어 강력한 에너지 전환 관련 내용이 포함된 UAE 컨센서스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GST1에서는 전지구적 에너지 목표 설정과 30년까지 전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석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합의했다.

COP29에서는 GST1의 결과 이행을 위해 설립한 UAE 대화체의 운영을 위해 대화체의 범위와 운영방식, 거버넌스 등의 절차적 요소 관련 당사국간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UAE 대화체의 범위 관련 당사국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선진국 등은 UAE 대화체가 모든 GST1 결과 관련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개도국은 UAE 대화체가 GST1 결과 이행을 위한 자원 논의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2-4. 적응(Adaptation)

COP29 적응 의제에서는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United Arab Emirates Framework for Global Climate Resilience)를 바탕으로 글로벌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과 이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는 글로벌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체계로, 정책 주기별로 설정된 목표치와 부문별 적응 행동 강화를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지표와 이행 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목표치 합의에 실패한 대신, 당사국들은 회의를 통해 글로벌 적응 목표 의제를 상설화하고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을 수립했다.

또한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NAP) 이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다양한 분야와 지역 간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바쿠 작업 계획 출범,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 플랫폼(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latform, LCIPP) 작업 계획 승인 등을 통해 기존 기후협약에 소외된 계층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COP29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회의였다. COP29는 '재정 COP'로 불릴 정도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의 확대와 투명한 기후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회의가 되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들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과 함께 기후 복원력 구축 논의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브라질 베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산림 보전, 생물다양성, 자연기반솔루션(NbS)등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3-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측면 강화

선진국들의 기여분을 기존 목표 대비 3배 늘려 연간 3,000억 달러로 하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가 타결되었다. 신규 기후재원목표 관련 선진국 조성 재원 규모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불만에도 합의 노력을 통해서 타결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그러나 선진국 기여분은 기존 연간 1천억불 목표로 2022년에 처음 달성한 상황이고,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희망했던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공약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기후 재정을 투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도출과 선진국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요구될 것이다.

3-2. 국제탄소시장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COP29에서 확정된 파리협정 제6조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타국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합의했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 NDC 달성을 위해 국외감축으로 375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탄소시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국제 감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3-3. 재생 에너지 전환 중요성 확인 및 에너지 저장 목표 강화

본 총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용량을 1.5TW로 늘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강조되기도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저장 용량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혁신과 공공-민간 협력을 촉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관련 기술 전수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재생 에너지의 확산을 돕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RE100, CFE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또는 탄소중립 이니셔티브가 확산되고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 결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기후변화협약(UNFCCC) 공식 홈페이지
2. 법무법인 세종 - ESG 뉴스레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환경부 [보도자료]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환경부)
4. 임팩트온, COP29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5가지 교훈

E

환경

**EU,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이사회 최종 승인**임팩트온 | 2024.11.21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70>**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 논의할 마지막 협상, 부산서 개막**경향신문 | 2024.11.26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51650001>**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안 유럽의회 통과**그리니엄 | 2024.11.29 <https://greenium.kr/news/59609/>**카카오, 드론·AI로 돌고래 살린다...ESG 기술 '반짝'**한경ESG | 2024.12.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16189i>**“친환경소재 강제, 목적·수단 정당하면 인정”...공정위, ‘기후테크’ 가이드라인 제정**헤럴드경제 | 2024.12.0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8723?ref=naver>**美청정연료 세액공제 지침, 연내 확정 안돼...SAF 사업 주춤**임팩트온 | 2024.12.0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03>**스코프4를 아시나요?...PCAF, ‘회피 배출량’ 측정 표준 만든다**ESG경제 | 2024.12.0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5>**PwC, 2024년 기후테크 투자 규모·거래건수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그리니엄 | 2024.12.08 <https://greenium.kr/news/59903/>**전주시, ‘그린수소 산업’ 육성·지원 방향 제시**한스경제 | 2024.12.09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703>**탄소 90% 줄인 재생 타이어...기후테크 뜬다**매일경제 | 2024.12.09 <https://www.mk.co.kr/news/it/11189912>**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 이사회 통과.. 연내 발효 예정**임팩트온 | 2024.11.2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73>**CJ대한통운, 구세군 빨간냄비 무료 배송...11년 연속 지원**전자신문 | 2024.11.28 <https://www.etnews.com/20241128000095>**교보증권, 연말 소외계층 지원 활동**한경ESG | 2024.12.0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28529i>**현대모비스, 22년째 사회공헌·자원봉사로 잇단 수상**한스경제 | 2024.12.05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387>**볼보코리아, 장애 어린이·청소년 지원에 3억 5000만원 기부**서울경제 | 2024.12.10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2EP69PW/GD01>**특수고용직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해야...사업주 책임 첫 인정**동아일보 | 2024.11.03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57816>**카카오뱅크, 밸류업 계획 발표... “3년 내 자산 100조원 목표”**조선biz | 2024.11.26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11/26/255LHY6WTVBUZIBV4LXBVSCS34/>**텍사스 등 공화당 11개주, 블랙록과 뱅가드 등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임팩트온 | 2024.11.2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243>**SK하이닉스, 배당금 25% 상향...주주환원 확대**서울경제 | 2024.11.27 <https://www.sedaily.com/NewsView/2DH0C2JOFN>**현대차, 1조 자사주 매입 시작한다... ‘4조 규모’ 주주가치 제고 약속 ‘첫 이행’**경향신문 | 2024.11.2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71414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자본시장법 정부안 이번주 국회제출**매일경제 | 2024.12.02 <https://www.mk.co.kr/news/economy/11183277>**영국, ISSB 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한발짝**ESG경제 | 2024.12.0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2>

S

사회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279	289	290	283	291	292	300	303
사회적채권	1,526	1,554	1,577	1,609	1,618	1,659	1,689	1,696
지속가능채권	254	238	237	230	261	258	262	254

(단위 : 천억 원)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녹색채권	259	264	264	264	269	268	274	273
사회적채권	2,044	2,079	2,102	2,121	2,113	2,153	2,165	2,172
지속가능채권	177	171	171	167	166	166	168	166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11.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203

(단위: 건)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11.3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3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11)* CF100 참여 기업 수:
167개 ('24.1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5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8월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COP29 주요 결과와 시사점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